KSADP

ISSN 2288-4270 (Print)
ISSN 2733-8711 (Online)

발달지원연구

제11권 제2호 (2022년 8월)

KJADP

한국발달지원학회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 11권 제2호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022년 8월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11권 제2호 / 2022. 8.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초기성인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오세옥 · 하정희 /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유연성으로 조절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최윤정 · 이창현 / 29

성인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구미영 · 송원영 / 55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요구조사를 통한 지역사회기반 지원방안
……한지현 · 최재광 · 이유경 · 송원영 / 75

유아용 6요인 기질척도의 개발과 타당화……이인영 · 윤진영 · 최해훈 · 김수아 · 최은실 / 9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이미진 · 김도연 / 117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2, Vol. 11, No. 2, 55-74
DOI: 10.22839/adp.2022.11.2.55

성인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구 미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박사과정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이 연구는 성인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차원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 남녀 223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관계만족과 다차원적 공격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를 통해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의 관계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다차원적 공격성의 병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관계에서의 만족이 낮았다. 둘째,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공격성은 애착불안과 관계 만족, 애착회피와 관계 만족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격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적대감의 매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관계 만족의 증진에 공격성, 특히 적대감에 대한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만족을 높이기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관계만족, 다차원적 공격성, 병렬 매개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원영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 Tel : 041-730-5414 / Fax : 041-730-5416 / E-mail : 1058@paran.com

성인애착을 형성하는 성인 초기는 의존에서 독립으로 변화를 하는 단계로 인생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단계이다. 연애, 결혼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심리 사회적 과업이다(Erikson, 1986). 특히, 성인 초기의 발달과업으로는 배우자 선택,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Havighurst, 1952).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친밀감과 애정욕구를 충족시키고 주관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반면 타인과의 갈등이나 소외감은 우울이나 스트레스,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한다(권석만, 1997). 연애, 결혼에서의 관계 만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삶의 만족, 심리적 안녕감 등과 관련된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관련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실패하게 되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회적 교류를 피하게 되어 고립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차승희, 1994; Loyd & Cate, 1985).

인간관계에서의 행복과 안녕을 대표하는 연구 변인은 성인애착이다. 관계의 질, 또는 관계만족에 미치는 변인으로는 정서표현 양가성, 보살핌, 감사, 자아 정체감, 관계 진솔성, 비합리적 신념, 데이트 중에 일어나는 폭력 및 강간을 포함한 공격성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있지만 성인애착은 연인, 부부관계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단연 활발하게 연구되는 개념이다(Hazan & Shaver, 1987; 김광은, 이위갑, 2005; 송슬기, 박경, 2014; 백상은, 설경옥,2015; 박한솔, 2015). 최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발표된 성인애착에 대한 선행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연애, 결혼의 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가 11개, 애착에 대한 심리적 요인인 자아 탄력성, 스트레스 대처, 거부 민감성 등의 관계연구가 43개, 애착과 행동적 요인에서는 중독, 폭력 회피 등이 9개, 폭력에 관한 연구 1개 등 다수가 존재한다(김태연, 2019).

애착이론은 Bowlby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인간은 1차 양육자인 보호자와 유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 유아기에 애착 대상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인지도식을 형성하는 내부 작동 모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Bowlby, 1982). 초기 애착의 질은 아이가 안정의 원천으로 애착 대상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초기 양육 경험은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내면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 초기 양육에서 아동의 내적작동모델의 적절하고 기능적인 발달은 양육자의 무관심, 거절, 잦은 양육자의 교체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의 조성으로 인해 방해받아 정신병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적작동모델은 유아기뿐 아니라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연인이나 부부 같은 성인기의 대인관계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애착은 발달론적 학자들이 성인기 사랑의 근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이다(김유숙, 2002). 아동기의 애착이 양육자를 통해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성인애착은 초기 애착에서 비롯되어 특정인과의 근접성, 그리고 접촉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두 사람 사이에 상호적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perling & Berman, 1994). Hazan과 Shaver(1987)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경험하는 낭만적인 연애 특성에 대해 Bowlby(1969)의 애착이론 틀 안에서 설명하였다. 성인애착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특정한 인물을 찾아 접촉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서적 유대감과 관련이 있다(Sperling & Berman, 1994). 성인애착은 불안과 회피라는 독립

적인 두 개의 축으로 다시 구분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애착불안은 관계에서 지나치게 몰입하여 상대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뜻하고, 애착회피는 타인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불편해하여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인애착의 하위유형들 역시 관계 만족도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김광은, 이위갑, 2005; 김명숙, 2009; 송슬기, 박경, 2014; 이학수, 2010).

공격성은 분노감(anger), 적대감(hostility)과 서로 밀접한 개념들로 일부 학자들에 의해 포괄해서 AHA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Spielberger et al., 1985). 공격성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행위 또는 욕구를 표출하는 상태를 말한다(김소영, 2008).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연약함, 열등감, 외로움, 버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 등의 두려움을 가리는 이차감정과 같은 역할을 한다(Huber, 1995).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통제력 저하를 가져오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공격성은 1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인 초기에도 형성되는 애착 관계에 따라 불안정할 경우 공격 성향이 나타나 공격적 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불안정 애착으로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Zara, Karen, Stephen, & Chris, 2019). 유아기에 형성된 불안정 애착은 아동기의 비정상적인 공격적 행동을 발달시키는 원인이 되고(Constantino, 1995), 부모 애착과 공격성의 상관을 연구한 최혜림(2005)의 연구에서도 언어적 공격성을 제외한 전 영역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김정선(2000)의 연구에서 공격성이 아동기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다. 어린 시절 1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불신이 생기거나 자신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어 의심, 공격성이 발달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한다(Hazan & Shaver, 1987). 성인이 된 후에 연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관계의 거부를 촉발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는 폭력과 거부의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 형성의 기본이 되는 애착 관계가 불안정하게 형성될 때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동이 유발되는 공격성은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면 공격성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하게 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거부당할 것에 대한 잠정적 단서로 인해 분노를 경험하게 되면 이성 친구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의도에서 폭력을 가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Follingstad, Bradley, Helff, & Kaughlin, 2002). 행동적 현상으로는 최근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송슬기, 2014). 애착과 공격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애착의 문제가 자해 및 자살(박지원 등, 2018), 우울(임지영, 황순택, 2011) 등의 부정적 정서 문제나 비행,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밝혔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김나리(2002)는 안정 애착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즐겁게 느끼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적게 겪으면서, 서로의 관계에 책임을 지며, 신뢰와 지지를 유지한다고 했다. 반면에 불안정한 애착을 형

성한 사람들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보다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표현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고, 최근 연구에서도 불안정한 애착관계와 공격성 간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되었으며 문제 해결 방식으로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Zara et al., 2019). 또한 이영숙(1999), 김용미(1996)의 연구에서 미혼 남녀들이 갈등이 발생하면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런 공격성은 결혼을 했을 때 부부관계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즐겁고 유쾌하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고 비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Bartholomew와 Horowitz(1991)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불안과 회피는 비판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 및 공격성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와 차별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 가지 유형이 대인관계 문제와 모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불안은 비판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에 더 두드러지게 기여하는 반면 불안과 회피는 적대감과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에 비교적 이바지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불안 점수는 정서 반응 (Wei, Ku, & Zakalik, 2005), 과민 반응 (Weems, Berman, Silverman, & Rodrogiez, 2002) 및 과도한 안심 추구 경향 (Davila, 2001; Shaver, Schachner, & Mikulincer, 2005; Wearden, Perryman, & Ward, 2006)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인 애착불안의 이러한 차원에 대한 상승은 특히 대인관계 민감성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회피 점수는 거부 민감도의 억제(Baldwin & Kay, 2003; Wei, Vogel, Ku, & Zakalik, 2005)및 원치 않는 자기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Mikulincer & Horesh, 1999). 앞서 Mikulincer(1998)는 불안하고 회피적인 성인애착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경험과 분노 표현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애착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강렬한 분노를 경험하고, 그들이 화난 감정을 숙고하는 경향이 있다. 애착회피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고된 분노를 경시하면서 더 강렬한 생리적 각성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돌리는 미분화 경향을 보고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애착회피를 가진 젊은 성인들은 분노와 적개심 수준이 더 높았고(Meesters & Muris, 2002), 높은 수준의 공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데이트 관계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Bookwala & Zcaniuk, 1998). Smallbone과 Dadds(2001)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애착불안이 반사회성을 예측하는 반면 애착회피은 강압적 성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요컨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공격적 문제의 예측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의 관계 만족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 연구는 인생의 전 발달단계에서 애착 경험이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훼손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공격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나 비행(박영숙, 임안나, 2017), 반사회적 행동(임지영, 황순택, 2011) 등의 문제행동 수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주를 이루었다. 이에 성인애착의 두 하위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따른 다차원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각각의 공격성 구성요인이 애착과 관계만족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

1. 애착과 관계 만족 간의 관계에서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관계 만족은 낮을 것이다.

2.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할 것이다.

3. 공격성은 성인애착과 관계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4.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감, 적대감에서 성인애착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하위 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설문절차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세종,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의 성인 223명으로, 국내 온라인 설문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총 5일간 실시되었다. 설문 작성은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나이, 성별을 최대한 균등하게 맞추어 실시되었다. 설문을 완료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조사 전문회사를 통해 지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나이, 최종학력, 혼인 여부, 연애경험 유무, 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조사하였고 빈도를 확인한 결과 성별은 남성이 110명(49.3%), 여성이 113명(50.7%)이었고, 나이는 20세~69세까지였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35명(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55명(24.7%), 대학원 석사졸업이 23명(10.3%), 대학원 박사졸업이 9명(4%), 중졸 이하가 1명(0.4%) 순이었다. 혼인 여부에서는 기혼 119명(53.4%), 미혼 86명(38.6%), 이혼 12명(5.4%), 별거 3명(1.3%), 사별 3명(1.3%)으로 나타났다. 연애경험은 있다. 212명(95.1%), 없다 11명(4.9%)으로 나왔다. 거주지역은 서울 73명(32.7%), 경기 65명(29.1%)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그 외 지역은 부산 13명(5.8%) 등으로 6% 이내 범위에서 유사한 빈도를 나타냈다.

측정도구

친밀관계 경험 척도(ECR-R)

이 연구에서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친밀관계경험 애착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Revised, ECR-R)를 이용하였다. 이는 Brennan, Clark, & Shaver(1998)가 개발한 척도(ECR)를 Fraley, Brennan, & Shaver(2000)이 개정한 척도로, 국내에서는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활용한 바 있다. 친밀관계경험 검사 개정판(ECR-R)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 총 36개의 문항이다. 하위차원인 불안, 회피에 대해 각각 18개의 문항이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7=매우 그렇다). 애착불안의 18개 문항은 '상호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나머지 애착회피 18개 문항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각 측정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특성 수준이 높고 애착이 불안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김성현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회피 애착. 85, 애착불안 .89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애착회피 .80, 애착불안 .94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공격성 척도 (Aggression

Questionnaire: AQ)

공격성 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AQ(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타당화한 것으로 총 27문항이다. 이 척도는 다차원적 공격척도로 신체적 공격성(9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공격성 .86, 신체적 공격성 .74, 언어적 공격성 .73, 분노감 .67, 적대감 .76이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전체 공격성 .91, 신체적 공격성 .83, 언어적 공격성 .75, 분노감 .77, 적대감 .84이었다.

관계 만족도 척도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nyder(1979)의 결혼 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 하였고, 이유진(2006)이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여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혼, 기혼 남녀 응답이 가능한 용어로 구성이 되어있고, 전반적 불만족(16문항),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7문항), 문제 해결 의사소통(12문항), 공유시간 갈등(6문항)으로 4개의 영역으로 총 41문항이다. 응답 방식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이유진(2006)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9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다음으로 각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분리하여 각각의 변인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절차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고, 모델 4를 통해 병렬매개 분석을 실시하고,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주요 변인인 애착불안, 애착회피, 공격성, 관계만족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의 상관분석 결과 애착불안은 공격성과(r = .15, p < .05)유의미한 정적 상관, 공격성의 하위요인에서 분노감(r = .16, p < .01), 적대감(r = .37, p < .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고, 애착불안과 관계만족(r = -.42, p < .001)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애착회피는 공격성(r = .42,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공격성의 하위요인에서 신체적 공격(r = .37, p < .001), 분노감(r = .36, p < .001), 적대감(r = .54, p < .001)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관계만족(r = -.42,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보였다. 또한, 공격성은 관계만족(r = -.26,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공격성의 하위요인에서 신체적 공격(r = -.17, p < .001), 분노감(r = -.17, p < .05), 적대감(r = -.38, p < .001)은 관계만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성인애착이 공격성을 통해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SPSS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애착불안을 독립변인, 공격성을 매개변인, 관계만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불안은 공격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 = .155, p < .05), 관계만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 = -.415, p < .001).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며, 관계만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은 관계만족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01, p < .001). 이는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관계만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표 2, 그림 1).

다음으로 애착회피를 독립변인으로 두고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애착회피는 공격성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 = .420, p < .001), 관계만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 = -.244, p < .001). 이는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며, 관계만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은 관계만족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64, p < .001). 이는 공격성이 높아질수록 관계만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표 3, 그림 2).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공격성의 하위요인의 병렬매개효과

성인애착(불안, 회피)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공격성 하위요인 4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애착불안과 관련하여 애착불안을 독립변인,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감, 적대감은 매개변인, 관계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4,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불안은 분노감(B =.175, p <.05), 적대감(B =.388, p <.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대감(B =.241, p <.01), 관계만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감에서 관계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대감이 애착불안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애착회피와 관계만족에서 공격성의 하위유형 4개에 대한 병렬매개의 결과는 표 5,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회피는 분노감(B =.175, p<.001), 적대감(B =.388, p <.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대감(B =-.368, p <.01), 관계만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감에서 관계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격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병렬매개 모형의 검증에서는 적대감이 애착불안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N=223)

	1	2	3	3-1	3-2	3-3	3-4	4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21**	–						
3. 공격성	.15*	.42***	–					
3-1. 신체적 공격	.06	.37***	.84***	–				
3-2. 언어적 공격	-.13	.02	.71***	.52***	–			
3-3. 분노감	.16**	.36***	.81***	.57***	.42***	–		
3-4. 적대감	.37***	.54***	.77***	.53***	.33***	.52***	–	
4. 관계만족	-.42***	-.24***	-.26***	-.17***	-.09	-.17*	-.38***	
평균	3.88	3.52	2.61	2.28	2.85	2.70	2.62	3.34
표준편차	.64	.93	.52	.65	.61	.69	.67	.66
왜도	.24	.09	.09	.51	-.14	-.01	.21	-.13
첨도	.66	.87	-.08	-.18	-.18	-.03	.40	.22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애착불안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N=22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F*	R^2
공격성	(상수)	2.125	.211		10.059***	.000	5.472*	.212
	불안	.126	.054	.155	2.339*	.020		(.205)
관계만족	(상수)	4.997	.248		20.139***	.000	46.077***	.173
	불안	-.429	.063	-.415	-6.788***	.000		(.169)
관계만족	(상수)	5.543	.293		18.915***	.000	29.599***	.212
	불안	-.396	.063	-.384	-6.340***	.000		(.205)
	공격성	-.257	.077	-.201	-3.321***	.001		

* $p < .05$, ** $p < .01$, *** $p < .001$

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공격성	-.4287	-.396	-.032	.018	-.073	-.004

Boot LLCI :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 :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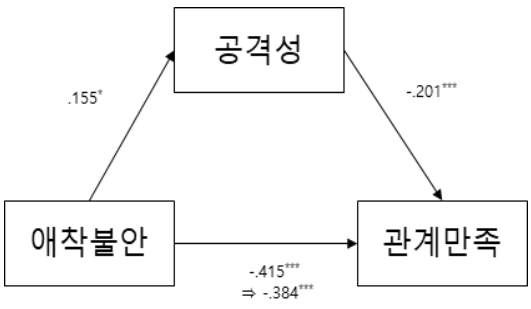
표 3. 애착회피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N=223)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F*	R^2
공격성	(상수)	1.795	.123		14.604***	.000	14.027***	.176
	회피	.232	.034	.420	6.878***	.000		(,173)
관계만족	(상수)	3.942	.168		23.529***	.000	14.027***	0.060
	회피	-.172	.046	-.244	-3.745***	.000		(0.55)
관계만족	(상수)	4.382	.232		18.925***	.000	10.895***	.090
	회피	-.115	.050	-.164	-2.309*	.022		(.082)
	공격성	-.245	.090	-.192	-2.713**	.00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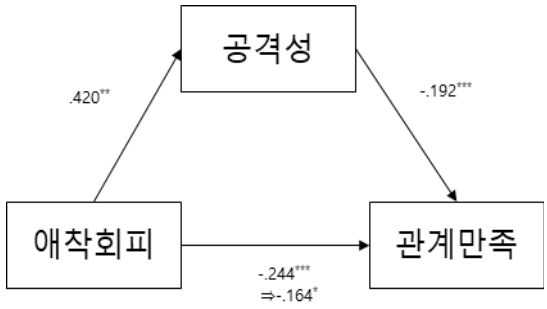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공격성	-.172	-.115	-.050	.020	-.110	-.014

Boot LLCI :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 : Bootstrapping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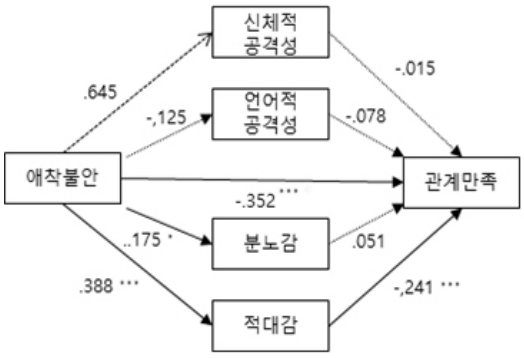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그림 1. 애착불안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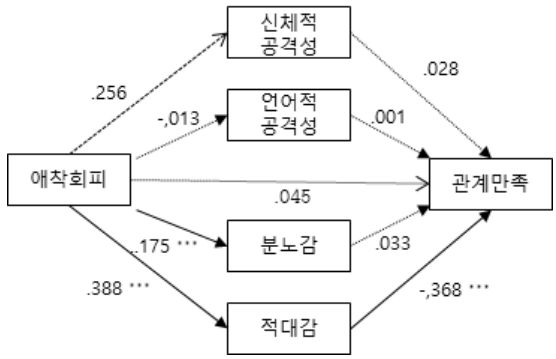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애착회피와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모형



*p < .05, ***p < .001.

그림 3. 애착불안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공격성의 병렬매개모형



***p < .001.

그림 4. 애착회피와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공격성의 병렬매개모형

표 4. 애착불안과 관계만족과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공격성의 병렬매개효과(N=223)

경로			B	$SE.$	t	p	F	R^2
애착불안	→	신체적공격	.645	.070	.933	.351	.871	.004
	→	언어적공격	-.125	.064	-1.954	.052	3.818	.017
	→	분노감	.175	.073	2.401*	.017	5.767	.025
	→	적대감	.388	.065	5.928***	.000	35.145	.137
신체적공격	→	관계만족	-.015	.082	-.181	.858	13.292	.234
언어적 공격	→		-.078	.078	-1.001	.317		
분노감	→		.051	.072.	.708	.479		
적대감	→		-.241	078	-3.070**	.002		
불안	→	관계만족	-.428	.063	-6.788***	.000	46.077	.172

			$Effect$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애착불안	→	관계만족의 총효과	-.428	.063	-6.788***	-.553	-.304
애착불안	→	관계만족의 직접효과	-.352	.06	-5.097***	-.489	-.216

간접효과				Effect	Boot SE	LLCI	ULCI
애착불안		전체		-.076	.0400	-.158	-.001
	→	신체적공격	→	-.001	.009	-.023	.019
	→	언어적공격	→ 관계	.009	.015	-.011	.048
	→	분노감	→ 만족	.009	.017	-.028	.044
	→	적대감	→	-.094	.038	-.172	-.022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애착회피와 관계만족과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공격성의 병렬매개효과(N=223)

경로			B	SE.	t	p	F	R^2
애착회피	→	신체적공격	.256	.044	5.822	5.820	38.880	.132
	→	언어적공격	.013	.044	.299	.765	.089	.000
	→	분노감	.175	.073	2.401***	.000	33.195	.130
	→	적대감	.388	.065	5.928***	.000	91.586	.293
신체적공격	→	관계만족	.028	.087	.322	.747	7.389	.145
언어적공격	→		.001	.083	.013	.989		
분노감	→		.033	.077	.427	.669		
적대감	→		-.368	.084	-4.342**	.000		
회피	→	관계만족	-.172	.461	-3.745***	.000	14.027	.059

			Effect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애착회피	→	관계만족의 총효과	-.172	.046	-3.745***	-.263	-.081
애착회피	→	관계만족의 직접효과	-.045	.055	-.824	-.155	.063

간접효과				Effect	Boot SE	LLCI	ULCI
애착회피	전체			-.128	.040	-.207	-.050
	→	신체적공격	→	-.007	.040	-.069	.094
	→	언어적공격	→ 관계	.000	.008	-.012	.022
	→	분노감	→ 만족	.013	.040	-.067	.094
	→	적대감	→	-.217	.059	-.333	-.099

** $p < .01$, *** $p < .001$

논 의

이 연구는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성인애착과 공격성, 공격성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애착과 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관계만족은 낮을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성인애착은 연애관계, 결혼관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관계만족과 부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인관계에서 거절과 유기에 대한 불안이 높을 때, 친밀해지는 것에 거리감을 두거나 불편해하는 강도가 높을 때 관계만족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관계만족에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김광은, 이위갑, 2005; 김용주, 장현아, 2017; 이건화, 양난미, 2018).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만족에 대한 애착불안의 효과크기와 애착회피의 효과크기를 비교하면 애착불안이 낮은 것으로 났고, 상관분석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인관계를 할 때 거절당하거나 버려지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친밀감이나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해지는 불편감이 관계만족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있을 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는 관계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Hadden, Smith, & Webster, 2014)에서 애착회피가 관계만족에 주는 영향이 애착불안과 관계만족간의 영향보다 더 크다는 것과 일치한다.

두 번째로 애착불안, 회피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이는 애착불안, 회피가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 연구(Kesner, Julian, & McKenr, 1997; Mauricio & Gormley ,2001; 이승우, 남재성, 2018)와 일치한다. 애착불안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이 높으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양승애, 서경현, 2014). 이는 높은 애착회피이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더 많은 폭력을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결과가 재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Godbout, Dutton, Lussier, & Sabourin, 2009).

세 번째로 공격성은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간에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우선 전체 매개효과를 보면 공격성은 애착불안, 회피와 관계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번째로 다차원적 공격성에서 어떠한 요인이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다차원적인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감, 적대감 각각에 대한 병렬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애착(불안, 회피)은 적대감을 매개로 관계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은 자기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어, 관계에 몰입하고 싶은 욕구와 동시에 유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 또, 애착회피의 자기표상은 긍정적이지만 타인 표상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다른 사람과 거리감을 느끼고 적대감을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성현, 2004).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감과 적대감의 경우 성인애착이 분노감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통해 분노감은 관계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분노감이 타인을 공격하기 위해 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생리적 각성 요소라면 적대감은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대할 것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관계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인들은 갈등상황에서 위협행동을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폭력 행동, 무례 행동, 대화 행동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공격적 태도에 대한 파트너의 행동 변화 조사에서 21.9%가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안경애, 2003). 적개심은 이러한 공격성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 애착회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자기표상이나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타인표상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관계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탐색과 알아차림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애착이론은 개인상담, 커플 및 부부상담, 가족상담에서 다루고 있는데(Horowitz et al., 1993; Hughes, 2014; Johnson, 2004), 애착이론의 내적작동 모델을 핵심으로(박신영, 2018; 장석진, 연문희, 2009) 내적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을 탐색하고 자신의 애착유형를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자신의 부적절한 내적작동모델을 탐색하고 다시 평가하는 것은 안정된 애착을 학습하거나 변화하도록 유도하여 관계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불안정 애착은 우울, 약물남용, 히스테리성, 경계성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리 발달에 기여한다고 한다(Rosenstein, Horowitz, 1996; Crittenden, 1995). 성인애착 유형에 대한 성격특성에서 애착회피는 편집증과 관련성이 높았고, 애착불안이 높은 집단은 회피와 대인관계적 문제 사이에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 지지되었고, 애착회피는 치료적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관련성이 있다(Berry, Barrowclough, & Wearden. 2008). 또, 불안과 애착회피 유형은 대인간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다(Stepp et al.,2008). 대인관계에서 이런 성격특성으로 인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포함한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Reddy, Meis, Erbes, Polusny, & Compton, 2011; Shorey, Seavey, Quinn, & Cornelius, 2014), 자신의 감정수용이 공격성과 부적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Zarling, Lawrence & Marchman, 2015) 수용기반 치료의 치료적 접근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수용전념 치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공격성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Ghouchani et al., 2018), Denson(2015),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셋째,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적대감과 관련하여 신민진과 하은혜(2020)의 연구에서 공격성이 비합리적 신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대할 것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적대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대적 도식 확인 및 상황에 대한 인지적 오류나 왜곡을 알아차리면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할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개입한다면 인지적 변화를 유발시켜 타인과의 관계만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데 먼저,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의 관계만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의 관계만족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상사 혹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시점에서 성인애착, 공격성과 관계만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는 미혼과 기혼, 20세부터 69세까지 다양한 대상이 참여하였다. 연령이나 결혼 상태에 따라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들 간의 차이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차이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변화에 따른 종단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권석만(1997). (젊은이를 위한)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487-501.

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97-524.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숙 (2009). 성인애착유형 조합에 따른 이성교제행동과 이성관계만족간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현 (2004). 친밀관계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 서울대하교 대학원; 2004.

김소연 (2008). 미술매체를 이용한 집단상담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김용주, 장현아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0), 61-82.

김유숙 (2002).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김정선 (2000).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연 (2019). 애착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2015년 이후 주요 상담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2(1). 46-61.

박신영 (2018).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 신입생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979-1102.

박영숙, 임안나 (2017). 공격성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을 매개효과로, 교정복지연구, 50(1), 57-86.

박지원, 서경훈, 한재현, 전영주, 정유진, 이원준, 성수정, 한창환, 조규종, 황재연 (2018). 자살시도자들에서 충동성과 자살시도의 의학적 치명도와의 관계. 생물정신의학, 25(4), 118-124.

박한솔 (2015).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이 연인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파트너에 대한 보살핌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상은, 설경옥 (2015). 미혼 남녀의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주는 감사와 받는 감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51-381.

송슬기 (2013). 여대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슬기, 박경 (2014). 여대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14(1), 285-285.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양승애, 서경현 (2014).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315-336.

이건화, 양난미 (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불안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2), 83-105.

이승우, 남재성 (2018).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 요인 검증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4(4), 53-72.

이유진(2006). 대학생의 부모애착, 부모 간 상호작용과 이성관계만족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학수 (2010). 대학생 성인애착유형 간 관계만족도와 심리적 특성의 차이: 불안, 내외통제성향, 자존감 및 심리적 안녕감.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영, 황순택 (2011). 경계선과 반사회성 성격병리에서의 충동성과 공격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118-124.

장석진, 연문희 (2009). 애착이론에 근거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및 능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031-2054.

차승희 (1994). 대학생의 이성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해림 (2005).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99-616.

한정희 (2020),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Mauricio, A., & Gormley, B. (2001). Male Perpetration of Physical Violence Against Female Partners The Interaction of Dominance Needs and Attachment Insecur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0), 1066-1081.

Baldwin, M. W., & Kay, A. C. (2003). Adult attachment and the inhobotion of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3), 275-293.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erry, K, Barrowclough, C., & Wearden, A. (2008). Attachment theory: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ymptom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sychosis. *Behav Res Ther, 46*(12), 1275-82.

Bookwala, J., & Xdamuk, B. (1999). Adult attachment style and aggressive behaviors with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2), 175-190.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K.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46-77). New York, NY: Guilford Press.

Constantino, J. N.(1995). Ear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children.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2*(5), 259-273.

Crittenden, P. (1995).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S. Goldberg, R. Muir, & J. Kerr (Eds), *Attachment Theory* (pp. 367-406). New York: The Analytic Press, .

Curran, N. J., West,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r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Davila, J. (2001). Ref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of related interpersonal constru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4), 538-559.

Denson, T. F. (2015). Four promising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reducing reactive aggression. *Current Opinion on Behavioral Science. 3*, 136 - 141.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york: Norton.

Follingstad, D. R., Bradley, R. G., Helff, C. m., & Kaughlin, J. E. (2002). Model for predicting dating violence anxious attachment, angry temperament, and need for relationship control *Violence and Victim, 17*(1), 35-47.

Ghouchani, S. Molavi, N., Massah, O., Sadeghi, M.., Hadi Mousavi, S., Noroozi, M., ... Farhoudian, A.. (2018). Effectivenes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on aggression of patients with psychosis due to methamphetamine use: A pilot study. *Journal of Substance Use. 23*(4), 402-407.

Godbout, N. D. G., Dutton, Lussier, Y., & Sabourin, S. (2009). Early exposure to violence, domestic violence, attachment representations, and marital adjustment. *Personal Relationships, 16*(3), 365-384.

Hadden, B. W., Smith, C. V., & Webster, G. D. (2014). Relationship duration moderates associ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relationship quality: Meta-analytic support for the temporal adult romantic attachment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8*(1), 47-58.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Havighurst, R.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zan, C., & Zeifrman, D. (1994). Sex amd the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pp. 151-178). Englan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gy, 52*(3), 511-524.

Horowitz, L. M., Rosenbe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4), 549-560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Huber, A.(1995). *Stichwort Angst*. Muenchen: Heyne.

Hughes, D. (2014). 애착중심가족치료 *[Attachment focused family therapy]*. (노경선, 서상훈, 박정미, 박영환, 신원철, 조재일, 김윤정 역). 서울: 눈출판그룹 (원전은 2011에 출판).

John E. Kesner, Teresa Julian, & Patrick C. McKenry (1997).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to male violence toward female intim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2), 211-228.

Kassinove, H., & Sukhodolsky, D. G. (1995). Anger disordersL basic science and practice issues.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3), 173-205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371-410.

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2*(2), 179-194.

Meesters, C., & Muris, P. (2002). Attachment style and self-resported agg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90*(1), 231-235.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513-524.

Mikulincer, M., & Horesh, N. (1999). Attachment style and the perception of others: The role of projective mechanism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6*, 1022-1034,

Reddy, M. K., Meis, L. A., Erbes, C. R., Polusny, M. A., & Compton, J. S. (2011). Associations among experiential avoidance, couple adjustment, and interpersonal aggression in returning Iraqi war veterans and their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9*(4), 515-520.

Renken, B., Egland, B., Mavinney, D., Mangelsdorf, S., & Sroufe, L. A. (1989). Early childhood antecedents of aggression and passiv-withdrawal in early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Personality, 57*(2), 257-281.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44-253.

Ryan Ryan C. S., JoAnna E., Heather Z., Jeniimarie F., Hope B., & Gregory L. S. (2014). Experience avoidance and male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 initial investigation. *Journal of Contextual Behavioral Science,*

3(2), 117-123.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Shaver, P. R., Schachner, D. A., & Mikulincer, M. (2005). Attachment style, excessive reassurance seeking, related processe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343-359.

Shorey, R. C., Seavey, A. E., Quinn, E., & Cornelius, T. L. (2014). Partner-specific anger management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mindfulness and female perpetrated dating violence. *Psycholigy of Violence, 4*(1), 51

Smallvine, S. W., & Dadds, M. R. (2001). Further evudence for a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insecurity and coercive sexual behavior in nonoffenders. *Journal pf Interpersonal Violence, 16*(1), 22-35.

Sperling, M. B., & Berman, W. H. (1994). *Attachment in Adult.* New York: Guilford Press.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A. Chesney & R.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pp. 5-30). New York: Hemisphere.

Sroufe, L. A, Carlson E. A, Levy A. K., & Egeland B. (1999). Im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1*(1), 1-13.

Stepp, S. D., Morse J. Q., Yaggi K. E., Reynolds S. K., Reed L. I., & Pilkonis P. A. (2008).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suicide-related behavio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5), 592-607.

Matthew T. T., Matthew J., Autumn P., & Kim L. G. (2008). The role of emotional inexpressivity and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severity and aggressive behavior among men exposed to interpersonal violence. *Anxiety Stress Coping. 20*(4), 337-351.

Weem, C. E., Berman, S. L., Silveman, W. K., & Rodriguez, E. T. (2002).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sensitivity and attachment style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4*(3), 159-168.

Wei, M., Vogel, D. L., Ku T., & Zakalik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Wearden, A., Perryman, K., & Ward, V.(2006). Adult attachment, reassurance seeking, and hypochondriacal concern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6), 877-886.

Zara P. B., Karen G., Stephen D., & Chris M. (2019). Attachment insecurity and

dispositional agg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anger regul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 36*(6), 1831-1852.

Zarling A, Lawrence E., & Marchman J. (2015).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for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3*(1), 199-212.

1차 원고접수 : 2022. 02. 28.
수정원고접수 : 2022. 06. 24.
최종게재결정 : 2022. 08. 30.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2, Vol. 11, No. 2, 55-74
DOI: 10.22839/adp.2022.11.2.55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Multidimensional Aggression

Mi Young Koo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Ph.D. candidate

Wonyoung Song
Departmen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dimensional aggression on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Due to thi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adult attachm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multidimensional aggression targeting 223 adult men and women. This collected data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and the parallel mediating effect of multidimensional aggression through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4.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the lower th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Second, the higher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aggression. Third,aggression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attachment avoida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Lastly,in the sub-factors of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hostility was the largest. We found that intervention in aggression, especially hostility, is important in promo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esent an intervention method to increase relationship satisfaction,and specif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Adult attachm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multidimensional aggression, parallel mediation effect